탐방프로그램 관리대장

☑ 탐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세석 자연관찰로)		
목 표	지리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문화 및 자연자원을 소개하고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세석평전과 복원과정, 아고산대 세석평전의 경관특성 등을 보며 지리산의 아름다움과 함께 함으로써 국립공원과 자연의 소중함을 함께 공감.		
운 영 장 소	☑공원구역내 □찾아가는(공원인근 또는 외부) □혼합형		
유 형	☑해설자안내 □스스로 안내 □체험형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범 주	☑자연해설 □역사문화 □해안생태 □갯벌사구 □거점해설 □자연체험 □역사문화 □자연경관 □문화경관 □해안경관 □야간 □슬라이드 □탐방안내소 □기타 ( )		
운 영 대 상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일반성인 □노인층(실버) □장애인 □외국인 □가족단위 ☑구분없음 □기타( )		
운 영 시 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 없음		
모 집 인 원	40명 내외	진 행 시 간(분)	(실내 분/실외 60분)
활 동 장 소	세석 자연관찰로		
및 특 성	세석평전의 전설과 복원 사업을 알리고 아고산대의 특징과 주변 생태계를 알리며, 세석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음 목적지로 가는 동안 자연을 더욱 소중히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		
준 비 물	해설주제와 관련된 각종 부교재 (식물도감, 루페, 세석평전의 전/후 대비 사진)		
첨 부 자 료	1. 프로그램 진행개요(별지서식-2) 2. 해설 시나리오(별지서식-3) 3. 해설가용 참고자료(별지서식-4)		

작 성 일 자	2009년 월 일	작 성 자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세석 자연관찰로)		
활동목표	세석평전의 어제와 오늘을 보며 탐방객이 훼손한 자연의 복원과 아고산대 식생 및 종주 능선의 경관, 그리고 고산지 습지의 생태계를 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자 한다.		
해설주제			
해설재료	자연관찰로의 표지판과 습지와 경관 및 식생 사진	소요시간(′)	6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동기유발	만남	인사나누기		
주제별 해설	세석평전을 소개합니다.			
	세석평전의 어제와 오늘			
	아고산대가 뭐예요?			
	살고 있는 식물은			
	어떤 동물들이 살까요?	숲		
	앗! 산에 습지가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 멀리까지 볼수 있어요.			
마무리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마무리			

작성자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친해지기	(양손을 흔들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예쁜 저의 미소를 보고 힘들었던 산행은 잠시 잊어보는게 어떨까요? (활짝 웃으며) 저는 지리산국립공원 세석지기 'OOO'라고 합니다. 어때요? 저의 미소에 반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각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간단하게 "반갑습니다"하고 인사해보아요. (옆 사람에게 시범적으로 먼저 "반갑습니다"하고 인사를 하여 유도한다) 각자 인사를 나누었으면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 세석 자연관찰로에 대해서 지리산의 세석지기인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귀 기울여서 세석지기가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름의 유래 및 전설	여러분 혹시 '세석'이라는 이름이 왜, 어떻게 해서 불리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세석이란, '작은돌' 즉, 세석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해서 세석평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잔돌평전, 세석고원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런 세석평전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설에 대해서 세석지기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호야'와 '연진'이라는 부부가 슬하에 자녀 없이 지리산 대성계곡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근처에 살고 있는 곰이 연진에게 찾아와, 세석평전에는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있는 '음양수'라는 신비의 샘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음양수 표지판과 음양수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이름의 유래 및 전설	그러자 그녀는 기뻐서 남편과 상의도 없이 곧바로 음양수 샘터로 달려가, 그 기적의 물을 실컷 마셔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평소 곰과 사이가 안 좋은 호랑이가 곰과 연진이 주고받던 이야기를 엿듣고, 이를 지리산 신령님께 고해바쳤어요. 그러자 산신령은 크게 노하여 음양수를 훔쳐 먹은 그녀에게 세석평전의 돌밭에서 평생토록 홀로 철쭉을 가꾸라는 형벌을 내렸고, 그 신비를 인간에게 가르쳐준 곰은 토굴 속에 가두었으며, 호랑이는 그 공으로 백수의 왕이 되게 하였다고 해요. 그로부터 연진은 불행한 운명을 스스로 저주하면서, 날마다 피눈물로 철쭉꽃밭을 가꾸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피눈물을 빨아먹은 철쭉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더욱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지리 10경중의 하나로 세석철쭉이 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그녀는 밤마다 산 정상에 올라가 촛불을 켜놓고, 천왕봉 산신령께 죄를 빌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은 없고 그녀는 그대로 굳어서 돌이 되어 버렸다고 해요. 그리하여 가련한 한 여인이 촛불을 켜놓고 바위로 굳어진 봉우리라 하여 그 봉을 촛대봉이라 부르게 되었고, 촛대봉에는 자기의 잘못을 산신령에게 빌고 있는 모습의 연진바위가 있어요. (촛대봉을 가르키며)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촛대봉이에요. 촛대봉에 가게되면 연진바위를 꼭 찾아보도록 하세요. 한편, 연진이 바위가 되어버린 사실을 모르는 호야는 그녀를 찾으려 칠선봉에서 세석 쪽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산신령의 제지로 결국 그녀를 볼 수 없게 되자, 가파른 절벽 위에서 그녀를 목 메이게 부르다가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는데 호야가 죽어 바위가 되었다 해서 호야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영신봉을 가르키며) 옆에 보이시는 영신봉에 있는 호야바위는 연진을 보고 죽었다고 하여 비스듬히 연진바위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음양수의 샘물을 마시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양수는 햇빛이 드는 곳을 '양수'라하며, 그늘진 곳을 '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석대피소에서 가시려면 대성 방향으로 2.1km정도 내려가면 만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세석평전의 전설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러한 세석평전의 역사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석평전의 역사	세석평전의 경우 옛날 신라시대에는 화랑도의 수련장으로 이용되었던 도장이었으며, 조선말기에는 동학농민들의 전장이 되었던 곳이기도 해요. 또한 일제 시대에는 징용과 징병을 거부하며 산으로 들어온 이들의 안식처였으며 6.25 전후에는 빨치산의 근거지가 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1900년대 이전까지는 구상나무가 많았던 곳이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화전과 산불로 인해 구상나무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석평전 훼손과 복원	세석평전은 70~80년대에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하여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산림의 훼손과 함께 산사태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1981. 6 무분별한 야영** **1994. 6 세석의 훼손된 모습** **1996. 10 세석 복원사업 모습** **1998. 7 복원 후**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세석평전 훼손과 복원	그래서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세석평전을 복원하기로 하였답니다. 처음에는 훼손지의 물길을 돌리고자 배수로를 만들어 토양이 떠내려가서 없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나, 겨울철 결빙에 의해 흙이 어는 현상으로 배수로의 설치물이 지표위로 돌출되는 현상에 의해 실패를 하고 말았답니다. 그 후 2차적인 방법으로 산 아래 있는 토양을 헬기로 실어 날라 흙이 떠내려가서 없어졌던 자리에 여분으로 판 공간에 흙을 메워 원상 복구를 하였어요. 세석평전 초지와 제석봉의 흙을 붙여서 뿌리째 떠낸 잔디를 옮겨 심었으며 구상나무의 경우도 초목을 심어서 재배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로 인한 성공적인 아고산지대의 훼손지 복원 사업의 성과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 간판을 보세요. 확실히 세석평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얼마나 많은 훼손이 이루어졌고 또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단계는 배수시설을 철거하고 자연배수 시스템으로 복원시켰으며 여러 갈래로 분산된 탐방로를 정비하고 구상나무를 현지 기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묘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로는 침식, 강물로 인해 파인 바닥을 정비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제3단계에서는 기반 안정 후 생육기반조성, 야생풀포기 심기 및 파종의 과정을 거쳐 식생 복원 공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이곳 세석평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모든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아고산대란	이제 세석평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나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세석평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곳을 '아고산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아고산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안보일 정도로 나무의 키가 높았다가 언젠가부터 나무의 키가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셨을꺼예요? 네, 바로 아고산대란 강한 바람과 혹독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나무가 4~5m이상 자라지 못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 세석평전이 바로 그러한 곳이지요. 해발고도를 보면 비교적 높은 편인 1500~2500m정도의 지역이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곳은 백두산 정상부, 한라산국립공원 정상부, 설악산국립공원의 정상부, 소백산국립공원의 능선부,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의 노고단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고산대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렇다면 과연 아고산대에는 어떠한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낮은 지역과는 다르게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겠지요? 이곳 아고산대인 세석평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로는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를 비롯하여, 병꽃나무, 철쭉, 진달래와 같이 키 작은 나무들이 있고, 그 외에 산오이풀, 동자꽃, 처녀치마, 물레나물 등이 있어요. 이제부터 세석지기와 함께 세석평전의 식물세계로 떠나볼까요?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산행을 하시면서 많은 나무들을 보시면서 오셨죠. 많은 나무들 중 보이는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는 비늘 모양의 돌기가 갈고리 모양과 닮았다하여 '갈고리 구(鉤)'자에 '모양 상(狀)'자를 써서 구상나무라고도 불리구요, 열매가 위를 향하여 열린다 하여 구상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상나무의 학명을 보면 Abies Koreana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Koreana란 단어가 눈에 띄지요? 바로 우리나라의 특산 수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구상나무는 자부심을 가지고 꼭 지켜야할 나무입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구상나무와 닮은 가문비나무가 있습니다. 가문비나무도 세석평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구상나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열매가 하늘을 향해 있다면 구상나무, 땅을 향해 있다면 가문비나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문비나무의 경우도 처음에는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잎을 보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구상나무 열매	가문비나무 열매

두 나무의 잎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볼까요(구상나무 잎과 가문비나무 잎으로 손바닥에 만져보기)구상나무의 잎은 끝이 하트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감촉이 부드럽지만 가문비나무는 뾰족한 잎이 손을 찌르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가문비나무보다 구상나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크리스마스 트리 아시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때 많이 이용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잎이 뾰족하지 않아서 덜 위험해서 많이 이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구상나무의 잎	가문비나무 잎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그리고 나무의 표피를 보아도 구상나무인지, 가문비나무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구상나무의 경우는 회백색인 반면 가문비나무의 경우는 짙은 회갈색으로 마치 물고기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세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의 차이를 알았나요?
소나무과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았던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와 비슷하게 보이는 소나무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소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 소나무가 왜 소나무인지 아시나요? 소나무는 잎이 솔처럼 모여난다고 하여 '솔나무'라 불리어왔다가 소나무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바위의 암반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 하여 절개, 기상, 힘 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곳, 세석평전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 이유는 세석평전에서는 소나무보다 구상나무나 가문비나무 같은 나무들이 자라기에 더 알맞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상나무의 껍질

가문비나무의 껍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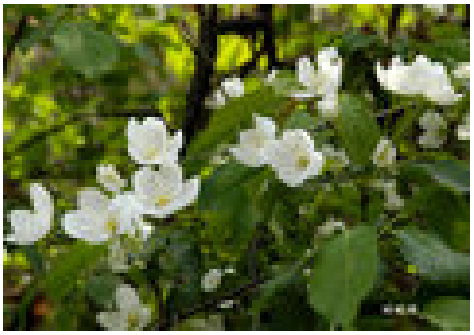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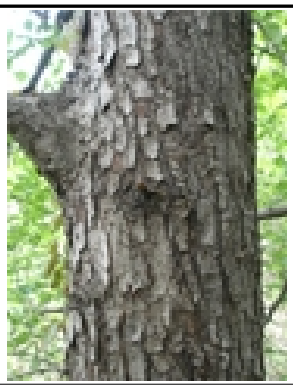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소나무	 소나무 잎 | 리기다소나무 | 잣나무 소나무는 바늘처럼 생긴 잎이 2개씩 모여서 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3개씩 모여나는 나무도 있을까요? 네.. 3개씩 모여나는 나무는 리기다소나무라고 나무는 3개씩 잎을 피우구요. 좀더 욕심이 많은 잣나무는 한꺼번에 5개씩 잎을 피운답니다. 그렇다면 소나무와 구상나무, 가문비나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가 소나무과에 속하는 건 맞지만 분명 그 차이는 있습니다. 세석지기가 이제부터 그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열매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의 열매를 흔히 솔방울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소나무의 솔방울은 씨가 흩뿌려지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솔방울이 통째로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나무 아래에는 형태 그대로의 솔방울을 찾아보기가 쉽지요. 반면에 구상나무의 경우는 솔방울이 떨어질 때 조각조각 흩어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솔방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문비나무의 솔방울은 소나무의 솔방울처럼 통째로 떨어지긴 하지만 매끈하고 부드럽다는 차이가 있어요.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소나무	우와, 많은 것을 알았지요? 이제 소나무과에 속하는 소나무와 구상나무, 가문비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박사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사계절 내내 푸르다는 거에요. 소나무는 왜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소나무 잎의 수명이 2년이기 때문이에요. 새 잎이 돋아 1년생이 되면 2년생이 되는 잎은 떨어지고 새 잎은 이듬해까지 푸르름을 간직한채 달려있어요. 그러다 2년생 잎이 또 떨어지면 다시 새 잎이 피어날 준비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가지에는 항상 1년생 또는 2년생의 잎들이 달리게 되면서 겨울에도 푸른빛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야광나무	이 나무의 이름은 야광나무입니다. 왜 야광나무라고 할까요? 야광나무의 꽃은 하얀색인데요. 그 흰꽃이 밤이면 빛을 낼 정도로 새하얗게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새하얀 꽃을 피우는 야광나무도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조심 나무를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이 가시들은 처음부터 뾰족하게 난 것이 아니구요 짧은 가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뾰족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야광나무  야광나무 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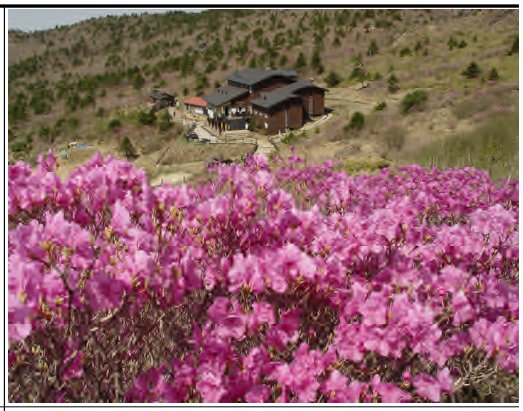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멧토끼	이 풀 속에서 한가지 보물찾기를 해볼까요? 콩보다는 약간 큰 동그란 것들이 수북하게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저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처럼 보이나요? 야생동물들은 사람들과 활동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물을 보기보다는 흔적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는 동물들을 알아 볼 수 있을까요? 네.. 동물들은 풀은 뜯어 먹은 흔적이나 배설물, 발자국 등을 통해서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흔적은 멧토끼의 배설물입니다. 멧토끼는 우리나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로서 털의 색깔은 전체적으로 회색이 강하며 경계심이 많이 항상 큰 귀를 이용해 주변에 소리를 들을려고 하며, 뒷다리가 길어서 달리기를 잘 한다고 합니다. 먹이는 나무의 새순, 잎 풀을 주로 먹어요.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나무껍질, 뿌리까지 갉아 먹어서 어린나무를 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멧토끼 멧토끼 배설물
철쭉과 진달래	자, 이제 지리10경의 하나! 세석평전의 자랑거리인 세석철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철쭉은 여러분이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아실거에요. 그렇다면 철쭉과 비슷하게 생긴 진달래와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쭉과 진달래는 자세히 보면 무언가 다르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지요? 이제부터 세석지기가 알려 드릴테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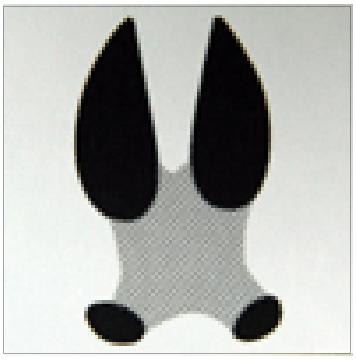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철쭉과 진달래	먼저 철쭉과 진달래의 가장 큰 차이는 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진달래는 이른 봄인 4월에 피어나지만 철쭉은 완연한 봄인 5월에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달래는 꽃이 핀 후,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나지만 철쭉은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피거나 잎과 함께 꽃이 핀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달래가 양지에서 자란다면 철쭉은 음지에서 많이 자라요. 잎을 보아도 진달래는 잎이 뾰족하지만 철쭉의 잎은 진달래에 비해 둥글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요. 옛날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진달래꽃이 피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화전을 부쳐 먹거나 두견주를 담가 마시기도 하였지요. 반면에 철쭉은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돼요. 그래서 철쭉을 일명 '개꽃'이라고도 불러요.  **철쭉** **진달래** 어때요? 철쭉과 진달래의 차이도 알겠지요? 지금까지 나무들만 보았다면 이제는 다른 식물들로 넘어가볼까요?
산오이풀	먼저, 산오이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산오이풀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잎이나 줄기를 비비면 오이냄새가 난다하여 오이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산오이풀	산오이풀 산오이풀의 잎 이런 오이풀이 산에 난다 하여 앞에 '산'을 붙여서 산오이풀이라고 해요. 산오이풀은 지리산과 설악산 등의 높은 아고산대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식물이랍니다. 산오이풀의 꽃은 8~9월에 붉은 자줏빛으로 피고 다른 꽃들과 달리 가지 끝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답니다. 꽃 모양은 기둥 모양이고 꽃줄기에 털이 빽빽이 나있지요. 잎은 어긋나게 나고 작은 잎이 새의 깃 모양처럼 붙어 있으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지요. 지리산의 산오이풀의 경우 멧돼지가 아주 좋아해서 산행을 하시다 보면 산오이풀이 있는 곳을 멧돼지가 파헤쳐 놓은 흔적을 볼 수 있을거에요.
멧돼지	조금 전에 산오이풀을 좋아한다는 멧돼지를 이야기 했었죠.. 멧돼지는 어떤 동물인지 잠시 알아보고 갈까요? 멧돼지는 이렇게 생겼어요!(사진 준비) 멧돼지  멧돼지 발자국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멧돼지	멧돼지는 주둥이가 길고 목이 짧은데 날카롭고 단단한 송곳니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등까지 길고 빳빳한 털이 나 있으며 화를 내면 털이 밤송이처럼 일어납니다. 깊은 산에서 무리지어 생활을 하며, 주로 저녁때에 활동을 합니다. 시력은 나쁘지만 청각과 후각이 아주 발달해 있으며 힘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먹이는 주로 나무뿌리, 도토리 과실류 등을 주로 먹지만 겨울철에는 죽은 동물과 작은 곤충의 번데기와 지렁이도 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이런 멧돼지는 다른 동물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혹시 멧돼지의 특이한 행동을 알고 있나요? 네. 멧돼지는 사람처럼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몸에 진드기가 많기 때문에 진드기를 떼어내기 위해 진흙탕에서 뒹굴고 물기가 마르고 나면 나무에 몸을 비비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멧돼지의 발자국입니다. 앞에 벌어진 두개의 발톱 뒤에 작게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항상 뒤에 조그맣게 찍혀 있어서 며느리발자국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멧돼지의 발자국 모형, 진흙목욕한 곳, 비빔목 등 관련 사진들 사전 준비)
동자꽃	다음 꽃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름은 동자꽃이에요. 이 꽃의 이름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답니다. 어느 절의 스님이 겨울을 나기위한 준비를 하기위해 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 내려갔어요. 그 사이에 아주 많은 눈이 내려 스님은 절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절에서 홀로 남아 스님을 기다리던 동자승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채 매일 스님을 기다렸지요. 그러다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 후 스님은 돌아왔고 죽어 있는 동자승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묘에서 마치 동자승의 얼굴처럼 붉은 꽃이 자랐어요. 그래서 동자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어때요? 동자꽃에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죠?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동자꽃	 동자꽃 / 줄기를 감싸고 있는 잎의 모습 동자꽃은 붉은 색 외에도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꽃잎을 보면 5장씩 나지만 꽃잎의 가장자리를 보면 2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7~8월에 하나의 꽃대에 한 송이씩만 핀답니다. 잎은 마주나는데 2장이 서로 겹쳐 줄기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지요.
처녀치마	 처녀치마 / 겨울의 처녀치마 모습 자,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잎의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잎이 땅바닥에 사방으로 꽃방석같이 둥글게 퍼져있죠? 마치 그 모습이 처녀들이 입던 치마와 같지 않나요? 그래서 붙여진 처녀치마입니다. 잎이 퍼져있는 모양이 꼭 처녀치마의 모양과 닮았다하여 붙여지게 되었어요. 처녀치마는 3월초에 꽃대가 올라와 하순이 되면 윗부분에 3~10개의 보라색 꽃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달려요. 이 꽃은 겨울철에 마르지 않고 땅에 깔려 겨울을 나고 봄에 바로 꽃대가 올라오는 점이 특징이에요.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물레나물	물레나물 물레 이 꽃을 보세요. 꽃잎이 바람개비처럼 회전하는 모양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용하던 물레라는 기구를 아시나요? 물레를 이용하여 식물에서 실을 뽑아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 물레라는 도구와 비슷하게 생겨서 '물레'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줄기가 네모지며 윗면은 초록색이나 아랫면은 갈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잎은 마주나고 갸름한 모양이에요. 꽃은 6~8월에 줄기 끝에 1송이씩 피고 꽃잎의 끝부분이 약간씩 안으로 굽혀져 있습니다.
세석습지	계속 꽃과 나무들에 눈길이 가시죠. 이곳 세석은 해발 1600이 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시면 신기한 구경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세석 습지 세석 습지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높은 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습지입니다. 어떻게 습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요?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세석습지	일반적으로 습지라 함은 물이 흐르다 불투수성 내지는 흐름이 정체되어 오랫동안 고이는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적 또는 인공적,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정수 또는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간조시 수심6m 넘지 않는 곳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물에 잠긴 지역으로 람사르협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산지습지는 산지에서 스며 나오는 물 또는 유수의 영향이 적은 산지사면이나 배수가 나쁜 평탄지에서 형성되며 토양은 일반적으로 영양분이 빈약하고 석회분이 적으며 분해되지 않는 유기질에 의한 부식의 영향으로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초기둥 사초기둥 습지 안을 보시면 볼록하게 솟아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사초기둥이라고 하며 습지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세석습지에서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 습지를 잘 살펴볼까요. 동의나물, 곰취, 산마늘, 박새, 골풀, 왜갓냉이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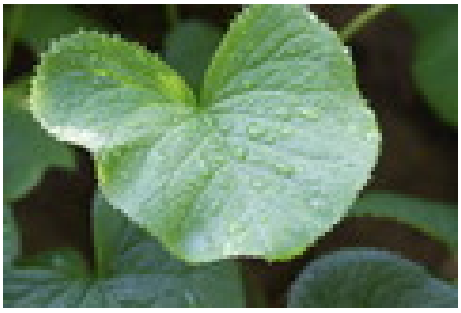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동의나물	 골풀 동의나물은 등심초라고 불리기도 하며 키는 50~100cm정도 자랍니다.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고 짧은 마디가 많으며 여기서 원기둥 모양의 밋밋한 녹색줄기가 나옵니다. 줄기는 속이 가득 차 있고 잎은 비늘 모양으로 밑동에서 나서 줄기를 감싸고 있다. 방석이나 돗자리 등의 재료로 쓰이기도 했답니다. 동의나물 동의나물(잎) 옛 우리 조상들은 나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들은 거의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예외적으로 못 먹는 나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 먹지 못하는 나물 중 하나입니다. 동의나물은 이른 봄에 푸른 잎과 노란색 꽃을 피워 봄소식을 전해주는 식물입니다. 해발 300m이상의 지역에서 자라는 한국특산식물이며, 어린 잎은 곰취와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곰취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곰취	 곰취(잎) 곰취(꽃) 곰취는 취나물 중의 한 종류로 곤달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깊은 산에서 자라고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는 곳을 좋아합니다. 잎은 하트형 모양을 하고 30cm이상 크게 자랍니다. 잎 끝에는 날카로운 톱니모양들이 있습니다. 7~9월에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박새와 산마늘	 박새 산마늘 이른 봄 새싹이 올라 올 때는 박새와 산마늘의 모습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어 박새는 먹으면 안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잎은 타원형이며 위로 갈수록 잎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7~8월에 흰색 꽃이 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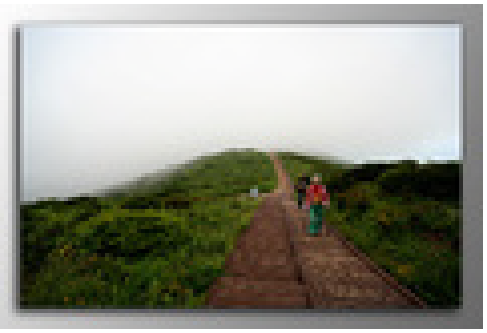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산마늘은 식물 전체에서 마늘냄새가 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강원도의 고산지대와 울릉도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며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답니다. 넓적한 잎이 2~3장정도 나오며 키는 20~30cm정도 자라며 5~7월에 흰색의 꽃이 둥글게 모여 핀답니다.
촛대봉	자 여기가 촛대봉이라는 곳입니다.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촛대봉 이곳은 멀리서 쳐다보면 촛농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였다하여 촛대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 봉우리와 한신계곡, 도장골 등 주변 계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산맥들이 보이시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노고단	 노고단 | 원추리 노고단은 지리산 하면 쉽게 떠오는 단어이죠! 성삼재관통도로가 생긴 이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리산의 한 봉우리입니다. 역사 속의 노고단은 신라시대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선도성모를 지리산 산신으로 받들고 나라의 수호신으로 모셔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리던 곳이구요. 일제시대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수양관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수양관은 1948년 여순 사건이 발발하면서 반란군의 근거지로 이용되었다가 국군 토벌대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빨치산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봄에는 철쭉이 유명하고 여름에는 원추리 겨울에는 눈꽃이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구요. 반야봉은 사람의 엉덩이 모양을 닮아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보세요? 다들 찾아 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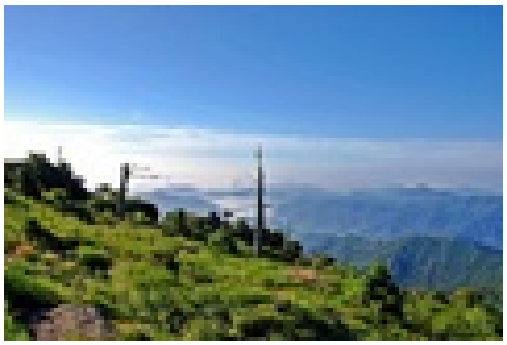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반야봉 영신봉	네. 지리산의 3대 주봉 중 하나로서 반야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오는 말로 지혜 또는 밝음을 뜻하며, 반야봉에 백번 오르면 스스로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천신의 딸인 마고할미가 지리산에서 불도를 닦고 있던 도사 반야를 만나 결혼해 딸만 8명을 낳고 천왕봉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반야는 더 많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반야봉으로 떠났고 마고할미가 백발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마고는 남편을 그리며 나무껍질을 벗겨 남편이 입을 옷을 만든다. 기다림에 지친 마고할미는 남편을 위해 만들었던 옷을 찢어 버리고 숨을 거두고 갈기갈기 찢어진 옷이 바람에 날리어 반야봉으로 날아가 풍란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반야봉** **영신봉** 세석평전의 서쪽에 있는 봉우리로서 과거에 영신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름에서 보이듯이 신령스러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제석봉	 제석봉의 봄 / 제석봉의 여름 제석봉은 고사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왜 고사목들이 많을까요? 예전의 제석봉은 어떠했을까요? 이 제석봉에는 6.25 이후까지만 하더라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한 곳이었는데요, 이 곳에 제재소를 차려놓고 베어내면서 수난을 당하기 시작했고, 도벌사건이 여론화되면서 말썽이 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러 나머지 나무들마저 타버린 곳입니다. 천왕봉은 지리산의 주봉으로서 남한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지리10경중 제 1경인 천왕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왕일출을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천왕봉	 천왕봉 천왕봉 일출 이렇게 지리산 능선의 봉우리를 알아 보았는데요.. 작은 봉우리들이 모여서 지리산을 이루고 이 산들이 모여서 커다란 대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1400km의 크고 긴 줄기를 이르는 말이며 이 백두대간속에는 한반도의 명산(금강산, 설악산, 속리산, 덕유산 등)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마무리	지금까지 정상만을 향한 등산에서 벗어나 자연체험을 통해 식물의 이름, 명소의 유래,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리산에서 느꼈던 감동들을 잘 간직하셔서 지리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국립공원 직원들도 아름다운 지리산국립공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산행 일정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산행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우리는 지금 아고산대에 있습니다.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참 고 자 료	
참고문헌 및 출 처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2002). 반달가슴곰과 함께 떠나는 아고산대 생태・문화 탐방.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관리사무소(2003).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서. ◦웅진출판주식회사. 한국의 자연탐험-야생동물(상),(하).